

解放後의 「씩레」過程分析

——穀價와 肥料價格을 中心으로——

金 俊 輔

(高麗大學校 · 政經大學 · 教授)

차 례

序 言

I. 戰後 混亂期の 「씩레」

II. 6·25事變中の 動態

III. 農業恐慌의 昂進期

IV. 重壓의 安定期

要 約

序 言

8·15解放後 韓國 農業經濟의 流通面에서 展開된 農工商品價格間의 「씩레」現象은 이미 多樣的 斷片의 으로 여기 저기에서 指摘된 바 적지 않다. 筆者 自身 일찌기 農村不況의¹⁾ 實態 分析이나 그 밖의 例에서 該의 局所의 過程만은 檢討한 바 있었던 낫은 「태마」이다. 그러나 元來 問題의 條件인즉 多岐하고 더욱 發展된 資本主義經濟 밑에 獨占의 諸資本에 의한 小農 生産의 被支配性에 關連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처음부터 複雜性和 長期性을 띠고 있는 動態의 樣相이라 할 수 있다. 以下 우리는 解放後의 全局面을 다음의 몇가지 段階, 즉 (1) 戰後의 混亂期, (2) 6.25事變中の 「인프레션」激昂期, (3) 1955年~1960年의 本格的 農業恐慌期, 그리고 (4) 1960年以後의 重壓의 安定期로 區分하되 이들을 相互關聯下에 計數的 重點의 으로 觀察하려는 것이다.

I. 戰後混亂期の 「씩레」

第2次 世界大戰의 終熄과 더불어 1945年 9月, 美軍政이 南韓에 施行되자 以後 國內의 政治的 混鈍에 발맞추어 經濟의 破局的 亂動相은 얼마동안 持續되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穀價의 急騰이 戰後의 民生을 크게 威脅하였으나 必需的 工產品의 農家需要價格은 더욱 國內의 供給源泉을 잃은채 暴騰을 거듭하였음이 주목된다. 그리하여 同年 秋收期를 맞이함으로써 米價는 약간의 反落을 보이었으나 肥料(代表; 硫酸)價나 廣木價등의 氣勢는 오히려 上昇을 거듭하였으니 어찌하랴. 1946年1月 米價의 再騰을 보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主要 農工商品價格間의 「씩레」는 一路擴大되지만 하였던 當時의 動態이다. (以下表參照)

다음 諸 表에서 본 바 始初의 「씩레」過程은 우리에게 너무나 歷然한 實態이나 그것은 곧 戰災나 그 밖의 戰後遺症의 「인프레션」에 關連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지금 보다 端的인 該의 進行相을 보기 위하여 1945年 平均의 各商品別 價格을 基準으로 1945年~1949年의 秋收期

1) 農村의 不況分析, (農業經濟學研究 第3輯, 韓國農業經濟學會誌)

〈表 1〉

解放直後の穀價와 主要工産品價對比

年 月	正 租 (60kg 2等)		精 米 (1石 1等)		大 麥 (同左)		硫 安 (45kg 1袋)		廣 木 (1斗 粗)	
	價 格	指 數	價 格	指 數	價 格	指 數	價 格	指 數	價 格	指 數
1945. 8	420 圓	100.0 (4,778)	2,100 圓	100.0 (7,000)	600 圓	100.0 (6,667)	60 圓	100.0 (1,538)	7 圓	100.0 (3,333)
9	210	50.0 (2,389)	1,100	52.3 (3,667)	500	83.3 (5,556)	60	100.0 (1,538)	13	185.7 (6,190)
10	125	29.8 (1,422)	700	33.3 (2,333)	500	83.3 (5,556)	90	150.0 (2,308)	19	271.4 (9,048)
11	220	52.3 (2,503)	650	31.0 (2,167)	500	83.3 (5,556)	125	208.3 (3,205)	25	357.1 (11,905)
12	250	5.95 (2,844)	840	40.0 (2,800)	550	91.7 (6,111)	130	216.7 (3,333)	40	571.4 (19,048)
平 均	245		1,078		530		93		20.8	

資料：朝鮮銀行，經濟年報，1948. 括弧内数字は 1936年基準の指數。各商品價格은 서울市都賣價但，廣木은 同小賣價。

〈表 2〉

穀價指數와 肥料指數

年	穀 物 (A)	肥 料 (B)	B A
(1945. 8)	100.0	100.0	100.0
1945	88.6	192.3	217.0
1946	446.1	1,484.5	332.8
1947	807.3	3,023.9	374.6

資料：同上 經濟年報，1948.

〈表 3〉

秋收期米價와 硫安價趨勢

年	精 米 (石當)		硫 安 (45kg)		B/A
	價 格	指 數 (A)	價 格	指 數 (B)	
1945	730圓	70.5%	115圓	123.7%	175.5
1946	7,700	714.3	1,200	1,290.0	180.6
1947	13,667	1,267.8	2,867	3,082.8	243.1
1948	13,193	1,223.9	2,367	2,545.2	207.9
1949	22,150	2,054.6	2,000	2,162.4	105.0

資料：同上 經濟年鑑，1949，1955. 各價格은 毎年 10月~12月間 3個月 서울都賣價格의 平均。但，1949年은 9月 및 12月3個月의 서울市都賣 價格平均 (白米는 1945年平均價 1,078圓=100, 硫安은 同93圓=100으로 본 指數)

(10月~12月) 米價와 同期의 硫安價格을 對照한다면 위의 表3과 같다. 結果는 역시 外肥導入의 杜絶狀態에 緣由한 그 價格의 優勢的 暴膨을 나타내는 計數이다.

사실인즉 金肥로 말하면 1946年頃부터 規制價格에 의한 一部配給이 米麥의 收納施策과 併

行하여 實施된바 있었으므로 우리에게는 여기에 政府의 收集米價와 더불어 그의 配給價格의 變動相을 對照함이 스스로 要求된다. 그런데 「쇠레」過程은 또한 이때에 歷然하여 그중 硫安價格은 米價를 基準으로 점차 5割을 넘는 騰勢를 보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表 4〉 收集米價와 硫安價格 (1945年=100)

年	精 米 (石當)		硫 安 (45kg)		B/A (%)
	價 格	指 數 (A)	價 格	指 數 (B)	
1945	118.4圓	11.0%	115圓	123.7%	1,124.5
1946	2,146.0	199.1	1,200	1,290.0	1,150.1
1947	2,366.0	211.0	252	271.0	128.4
1948	4,440.0	411.9	460	494.6	120.1
1949	9,620.0	892.4	1,333	1,438.7	155.6

資料：同上 但, 1945~1946年の 硫安價는 非統制價格이므로 「쇠레」의 變化相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서 收集米 1石은 180.4圓 基準은 1945年の 前揭 平均價格.

우리는 여기에 1945年 秋穀以來 施行된 米麥의 供出制를 想起하고 그의 推進이 바로 위의 「쇠레」現象을 가져온바 가장 露出된 促求策이었다함에 格別히 留意한다. 다만 이 때에 收集米價와 統制된 硫安價格과의 對比함으로써 어찌 그의 強度를 如實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問題는 더욱 內面的 考察을 깊이 要求하는 深刻한 條件이다.

〈表 5〉 收集米價와 市場米價

年	(A)	(B)	A/B
	收 集 米 價	市 場 米 價	
1945	12환	12환	100.0
1946	21	72	342.9
1947	23	123	534.8
1948	44	176	400.0
1949	96	191	199.0

資料：農協中央會, 韓國의 農業問題, 1963, p. 82 各 米價는 180.4圓.

II. 6·25事變中の 動態

그러면 1950年 6月25日 勃發된 事變으로 말미암아 事態는 問題의 局面에 어떠한 進展을 보인 것인가?

酷甚한 戰災와 무엇보다 交通의 間歇的 杜絕狀態로 말미암아 都市穀價는 그의 急騰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釜山 또는 서울의 穀價는 얼마동안 결코 農村을 包含한 國內의 代表的 價格水準을 가리키지 못한 局所의 指標의 性格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穀價의 工產品價格에 比較한 一時的 騰貴를 본다할지라도 그것은 곧 戰災의 與件의 偶然的 所産이라 할 수 밖에 없다. 『穀價는 動亂直後부터 甚한 激騰相을 나타내어 米穀精穀石當 年中 平均價格은 1949年の 191환에서 1952에는 9,300환으로 2年間에 無慮 50倍의 昂騰率을 보이었다』(農協中央會, 韓國農政二十年史, p. 289)함은 바로 그러한 關係의 表示이다.

그런데 動亂 直後부터 激騰한 穀價波動을 막기 위하여 當局은 都市配給制를 擴大하는 同

〈表 6〉

穀價指數와 物價指數

	(秋 米 價 指 數 (A))	物 價 指 數 (B)	$\frac{B}{A} \%$	穀 價 指 數 (C)	$\frac{C}{B}$
1947	100.0	100.0	100.0	100.0	100.0
1951	2,166.7	2,194.1	101.3	2,194.1	94.1
1952	6,515.3	4,750.8	72.9	4,750.8	153.7
1953	4,662.0	5,591.0	119.9	5,951.0	127.2
1954	6,544.7	7,628.5	111.6	7,628.5	79.7
1955	12,655.3	13,815.7	109.2	13,815.7	105.6

資料：同上，經濟年鑑 但，1951年の 秋收米價는 12月(其他秋收米價는 10月~12月平均)

1947年을 基準으로 삼는 理由는 事變前 多少間 國內經濟의 收拾을 보기 시작한 年度이기 때문이다.

〈表 7〉

穀價指數와 肥料價指數

年	穀 (A)	肥 (B)	料 $\frac{A}{B}$
1947	100	100	100.0
1950	410	910	222.0
1951	2,064	6,136	297.3
1952	7,305	7,987	109.3
1953	7,567	8,449	111.7
1954	6,077	8,449	139.0
1955	14,587	14,825	101.6

資料：경제통계연보, 1960, p. 250

商品價格은 서울都賣, 但 1953年度の 것은 釜山の 것. 여기에서 穀物은 米穀, 麥類를 포함한 10品目, 肥料는 硫安, 硝安, 石灰窒素 및 硫酸加里를 주로 包含한다.

〈表 8〉

買入米價와 市場米價

	買 入 米 價 (A)	市 場 米 價 (B)	$\frac{A}{B}$
1950	296.0환	—환	—%
1951	1,176.6	2,318.1	197.0
1952	3,611.2	8,388.6	232.3
1953	5,957.0	8,731.0	146.6
1954	9,509.0	7,090.0	74.6
1955	14,000.0	17,039.0	121.7

資料：農協中央會, 韓國農政二十年史, p. 317.

1953~1955년에는 여기 買入米價以外에 보다 低廉策定價格인 收納米價가 發表된바 있음.

單位：各 180.4l (1石)

時에 時期를 가리지 않는 無分別한 糧穀導入施策을 敢行하였다. 그러므로 例컨대 1953年中 外穀 導入量은 710萬石의 記錄을 세웠었고 同年 10月의 穀價는 類例없는 暴落을 자아냈던 實態이다. 『이러한 穀價暴落의 結果 深刻한 農業不況이 惹起되어 農村經濟를 極度로 窮乏化 시켰기 때문에 不過 1年前까지만해도 穀價暴騰抑制에 腐心하였던 政府는 糧穀暴落防止와 그

適正價格保障을 위하여 糶물하여야 하는 아이로닉한 事態에 直面하게 되었다』(同上 P. 290).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도 1951年以來 土地收得稅制(現物稅)는 強行되고 農地改革에 뒷다른 糧穀償還措置는 推進되었으며 糧穀買入制 또한 依然 持續되었으므로 農村의 困窮은 累加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때에 農民으로 말하면 戰亂下 激甚한 財政「인프레션」을 偏跛的 「씩레」形成으로 스스로 막아야만 하였던 不運의 主人公이다.

Ⅲ. 農業恐慌의 昂進期

6·25事變以來 1955年頃까지를 戰時「인프레션」에 對處하는 農業生産의 一方的 寄與期라 한다면 그 후 1960年頃까지는 前段階의 困憊한 土臺위에 展開된 本格的 農業恐慌期라 할 수 있다. 실로 前期以來의 糧穀에 관한 收奪的 買入政策은 緩和되지 않는 가운데 「씩레」過程만이 加重하여 深化擴大를 보인 것이 이때의 特徵이다.

우선 物價指數와 穀價 또는 米價의 指數를 綜合的으로 管見하면 다음과 같다.

〈表 9〉 物價指數와 穀價指數

年	都 賣 物 價 指 數	穀 物 指 數	穀 物 除 外 指 數
1955	100.0	100.0	100.0
1956	131.6	159.9	122.4
1957	152.9	183.2	142.9
1958	143.4	150.0	141.3
1959	147.2	131.4	152.5
1960	163.1	157.4	165.0

資料：韓銀資料，農業經濟研究(農業經濟學會誌) 第3輯 p. 2. (金俊輔)

〈表 10〉 秋收米價指數와 非穀價指數

	精 米		非 穀 物 指 數 (B)	$\frac{B}{A}$
	價 格	指 數 (A)		
1955	18,983	100.0	100.0	100.0
1956	35,017	184.5	122.4	66.3
1957	24,597	129.6	142.9	110.3
1958	23,521	123.9	141.3	114.0
1959	20,717	109.1	152.5	139.8
1960	26,826	141.2	165.0	116.8

資料：經濟年鑑，1956~1960. 但，白米 200l 價格.

더욱 앞에서의 例에 따라서 穀價와 肥料價格을 指數의으로 對照하건데 이 때에 「씩레」現象은 急壇포로 露骨化함을 볼 수 있다. 1947年 基準의 이들 兩指數는 다음 表11에서와 같이 일단 1955년에 이르러 均衡의 樣態를 보인 것이나 다시 그 以後 肥料價格의 相對的 上昇 氣勢로 轉換한 것이 이 때의 趨勢이다.

더욱 試驗삼아서 政府의 穀價政策을 反映한다고 보아지는 年年의 買入策定米價와 疏安規制價格을 살펴 보면 12表와 같다.

〈表 11〉

穀價指數와 肥料價指數

	穀 物		肥 料	
	1947 年基準	1955 年基準	1947 年基準	1955 年基準
1955	14,587	100.0	14,825	100.0
1956	22,861	156.7	51,375	346.5
1957	26,553	182.0	53,940	363.8
1958	21,781	149.3	53,940	363.8
1959	19,119	131.1	53,940	363.8
1960	22,483	154.1	53,940	368.8

資料：경제통계 연감, 1960, p. 250. 其他는 表(7) 참조.

〈表 12〉

政府買入米價와 硫安價格

年	米 穀 (石當)		硫 安 (45kg)		B A
	價 格	指 數 (A)	價 格	指 數 (B)	
1955	14,060원	100.0	579원	100.0	100.0
1956	19,062	135.6	1,799	310.7	229.1
1957	19,062	135.6	1,886	325.7	240.2
1958	19,062	135.6	1,886	325.7	240.2
1959	19,062	135.6	4,601	799.8	589.8
1960	19,062	135.6	4,502	700.5	516.6

資料：韓國農政二十年史, p. 315. 經濟年鑑 1960. 但, 1959 및 1960年の 硫安價格은 농업연감, 1963.

사실인즉 穀價는 이 땅에 있어서 外穀의 導入이나 豐凶의 強度에 크게 左右됨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동안 政府의 一般物價를 調整하는 戰略的 「파라미터」로서 操作되어 왔었고 偏向的으로 低物價政策과 財政安定政策을 위한 것이 되어왔다함은 周知한 바와같다.

〈表 13〉

米價季節指數의 變動幅

年	最高季節指數	最低季節指數	年 中 變 動 幅
1953	123.0	72.0	51.0
1954	121.8	73.0	48.8
1955	150.3	67.3	83.0
1956	131.4	62.8	68.6
平 均			62.9
1957	118.8	73.4	45.4
1958	113.0	83.1	29.9
1959	112.9	85.9	27.0
1960	124.4	95.7	28.7
平 均			32.8

資料：農業年鑑, 1964, pp. 1~88. 韓國農政二十年史, p. 292.

그런데 이들은 결국 小農民으로 하여금 窮迫한 生活下에 奸巧한 謀利商의 買占賣惜行爲와 함께 穀價의 季節變動指數를 유난히 크게 動搖시키는 條件을 形成케 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지금 韓國農村에 있어서 『대체로 1950年以來 穀價의 季節의 變動은 매우 尤甚하여 依例히 出荷期인 年末에는 低落하고 春窮期에는 暴騰하는 傾向을 되풀이하여 왔는데 1957年의 경우에는 이것이 특히 甚하였다』(韓國農政二十年史, p. 291) 여기에 「米穀擔保融資制度」의 實施를 同年 가을에 보게되었다는 사실은 주목되고 이것이 어느정도 米價低落에 寄與한 점 또한 우리의 記憶한 바와 같다. 사실 다음 表에서 본 바와 같이 米擔融資가 實施되기 以前인 1953년부터 1956年의 期間에 있어서 우리는 米價의 年間 平均變動幅이 62.9%로 나타난데 대하여 1957年以後의 그것은 32.8%로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1955年의 年中 變動幅과 같은 것은 실로 83.0%에 달하는 큰 季節의 騰落相이었던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年々の 月別統計에 있어서 秋收期米價와 그 以前月의 米價 사이에 반드시 큰 差異를 볼 수 없는 樣相임은 그 동안 「인플레이션」의 進行이 急激하였던 所致이다.

表13에서 본 바 米價의 季節의 變動幅은 1957年以來 相當한 緩和를 보이었다 할지라도 『1958年으로 접어들면서부터 1957年産 秋穀의 豐作과 糧穀輸入의 激增에 影響을 받아 穀價는 全般的인 下落相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穀物을 除外한 商品의 價格에 대한 穀價의 係數率은 1957年의 128.2에서 1958년에는 106.3이 되었고 다시 1954년에는 86.7이 되었다¹⁾. 이와 같이 「씨레」現象의 顯著化에 따라서 農業의 交易條件은 惡化되어 農業經濟는 沈滯를 免치 못하였다. 云云』(同上, p. 293)한 것이 바로 이 때의 不況相이다.

米價와 一般物價指數

年	精 米 (100kg)		物 價 指 數	備 考
	價 格	指 數		
1928	20.87	212.5	214.43	基準은 1908年 米價 基準 9.35圓
1929	21.30	227.8	207.24	
1930	18.58	198.7	179.60	
1931	12.47	133.3	145.26	
1932	15.41	164.8	144.45	
1933	15.77	168.8	160.09	
1934	17.25	195.2	162.32	

Ⅳ. 重壓의 安定期

1960年과 1961年에 韓國은 연 깊은 政權變革을 보았으며 그 때마다 農村의 不況은 深刻한 政治的 「테마」로서 再認識되어 왔다. 『絶望과 飢餓에 허덕이는 民生苦를 時急히 解決하고 云云』한 것은 바로 1951年 5월에 誕生한 軍事政權이 크게 내뿜세던 公約의 하나이다. 사실 農村經濟의 破綻相을 말하자면 이때에 너무나 뚜렷하였으므로 軍事革命直後 때를 놓치지 않고, 農漁村高利債整理法의 施行을 보았고 同年8월엔 「農產物價格維持法」의 公布를 보게되었음은

1) 表10에서의 資料와 반드시 一致되어 있지 않으나 傾向性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때의 穀價下落에 관한 強度를 對照하기 위하여 1930年代의 農業恐慌期에서 본바를 求해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前掲의 表10과 對照함이 有益하다.

劃期的이라 할만하다. 그가운데 무엇보다 主要農產品에 관한 生産費補償主義의 保障이 자못 크게 標榜되었던 政策이나 그러면 그후 이 方面의 成果는 어떠한 것인가?

우선 1959年以來 農業協同組合中央會(當時農業銀行)의 標本調査로 作成된 農產物의 農家販賣價格指數와 購買價格指數는 有用하거나와 그의 綜合的 對比 즉 이른바 「페리티」率을 年度別로 計算하면 다음 表14와 같다. 즉 1960年을 基準으로 삼았을 때 多少나마 逆「페리티」의 展開를 보이는 數的 動態이며 總體的으로 보아서 3%~9% 程度 農家販賣價格指數의 購入價格指數에 대한 比率는 形式上 有利한 方向이다. 더욱 그중 部分的으로 米價와 肥料價格의 變動相을 對照할 때 그러한 開差 역시 擴大되어 간다는 動態를 우리는 無視할 수 없다. 따라서 部分的 價格條件에 관한 限 農村經濟의 現實은 여기에 어느 정도 矛盾性이 解消된 段階에 놓여 있는 樣相이다.

〈表 14〉 農產物販賣指數와 農家購入品指數比率

	農 產 物 (A)	購入品質料 (B)	$\frac{B}{A}$	米 穀 (C)	肥 料 (D)	$\frac{D}{C}$
1960	100.0	100	100.0	100.0	100.0	100.0
1961	115.9	112.0	96.6	124.1	102.1	82.3
1962	131.7	124.2	94.3	131.8	112.2	85.1
1963	186.9	149.9	80.2	210.2	112.0	53.3
1964	131.6	201.9	153.4	339.2	139.3	41.1
1965	255.8	234.0	91.4	248.7	201.2	80.9
1966	268.0	256.2	95.6	259.6	201.2	77.5

資料：農業年鑑, 1966, 統計篇, 韓國統計年鑑 1967.

本期의 逆「페리티」關係는 市場平均米價뿐이 아니라 農家の 秋收販賣米價나 政府買入米價와 肥料價格의 動態에 비추어 대체로 그대로 確認된다. 즉 前段階의 過程이나 時期別 去來數量을 따지지 않고 農家の 受取米價와 配給價格만을 보는 限 確安이나 硫安등 普遍的 窒素肥料의 騰貴率은 改善된 狀態라는 것이 其間의 計數的 內容이다.

〈表 15〉 秋收期販賣米價와 肥料價格對比

	精 米		硝 安		硫 安		(市 場 米 價)	
	價 格	指 數	價 格	指 數	價 格	指 數	價 格	指 數
1960	원 2,683	100.1	원 547.6	100.0	원 405.2	100.0	원 2,736	100.0
1961	2,955	110.0	551.1	100.7	391.6	96.6	3,374	123.3
1962	4,288	159.8	542.2	99.0	397.3	98.1	3,536	129.3
1963	5,318	199.0	589.0	107.6	385.0	95.0	5,602	204.8
1964	5,966	222.3	604.0	143.3	311.0	96.8	6,940	253.7
1965	6,180	230.3	1,181.0	210.6	688.0	169.8	6,648	243.0

資料：農業年鑑, 1966, 精米 200L, 硝安價는 N 33% 45kg, 硫安은 21% 45kg, 市場米價는 年中 全國平均都賣價格.

그러나 위의 逆「페리티」의 動向에 그대로 滿足하지 않고 우리는 1960年 基準에 의한 위의 穀物指數와 肥料指數를 比較的 安定性을 가졌다고 보아지는 1945年 基準(이는 1947年의 基

〈表 16〉

政府買入米價와 肥料價格

年	精	米	硝	安	硫	安	B	C
	價	格	指 數 (A)	指 數 (B)	指 數 (C)	A	B	B
1460	1,9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61	2,789	146.3	100.7	96.6	68.8	66.0	66.0	66.0
1962	2,979	156.3	99.0	98.1	63.3	62.8	62.8	62.8
1963	3,700	194.1	107.6	95.0	55.4	48.9	48.9	48.9
1964	4,755	249.4	143.3	96.8	57.2	67.5	67.5	67.5
1965	5,670	297.5	210.6	169.8	70.8	80.6	80.6	80.6

資料：韓國農政二十年史, p.316 精米石當(180.4) 硫安 N33%, 硝安 21%, 各 45kg 1袋

準과 實質的으로 같다. 表7참조)으로 換算하여 보는데 意味는 없지 않다. 과연 이 때에 結果는 다음 表17에서 본바와 같이 여전히 「쇠레」의 持續性을 보여주는 逆轉된 事態이다. 그러면 위의 1960年代의 逆「쇠레」過程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表 17〉

穀價指數와 肥料價指數

年	穀 物		肥 料		B
	1960年	1955年(A)	1960年	1955年(A)	A
1960	100.0	154.1	100.0	363.8	236.1
1961	124.2	191.4	102.1	371.4	194.0
1962	132.8	204.6	112.2	408.2	199.5
1963	214.6	330.7	112.0	407.5	123.3
1964	271.5	418.4	139.3	506.8	121.1
1965	247.8	381.9	201.2	732.0	191.7
1966	259.1	399.3	201.2	732.0	183.3

資料：表11참조.

우선 우리는 당장 1960年代의 前段階에 對比한 逆「쇠레」自體를 否定하지 않는 것이나 그의 外形에 앞서서 한걸음 經濟의 內面을 追究할만한 理由는 여기에 없지 않다. 「쇠레」의 性格인즉 본래 相對的 意味를 갖는 것에 不過하고 農村經濟의 實質이 그에 의하여 어떠한 것인가. 問題는 이 점만이 窮極的으로 決定할 수 있는 絕對的 條件의 정립이다. 생각컨대 지금 前段階에서 보여준 極端의 矛盾된 價格條件의 外形이 어느 정도의 匡正을 보인바 있다 할지라도 우선 우리의 묻고자 하는 事態는 個別的 肥料의 價格에 앞서서 客觀的으로 주어진 肥料의 非效率의 利用에 관한 難點이라 할 수 있다. 사실 現實의 例에 있어서 肥料의 時期를 잃은 搬入이나 不必要한 肥料의 配給이 그의 虛失을 가져오게 하고¹⁾ 低穀價政策의 續行이 오히려 細農으로 하여금 土地生産性的 提高를 위하여 肥料의 濫投를 가져올 수 밖에 없게 한 過程을 우리는 看過할 수 없는 까닭이다.

1) 軍事革命 以後 肥料는 全的으로 協同組合의 配給에 屬해졌으나 非民主的 弊端으로 適期를 逸失한 바 적지 않다. 더욱 當局은 農民이 所願치않는 肥料를 흔히 所願하는 肥料에 언저서 強賣한 事例 또한 許多하다.

〈表 18〉

金肥消費實績과 米穀收量

年	成 分				石 當 生 費 中 金 肥 額	同指數	反 收	同指數
	計	窒 素	磷	酸 加 里				
	(ton)				원		71	
1960	136,827	87,653	42,784	6,390	233	100.0	1,410	100.0
1961	308,494	210,867	80,788	16,839	259	111.2	1,765	125.2
1962	59,855	19,856	39,959	—	293	125.8	1,538	109.1
1963	307,095	191,729	94,371	20,995	305	130.9	2,052	145.5
1964	364,145	173,152	153,571	37,422	459	197.0	1,993	141.3
1965	393,098	217,925	123,489	51,684	743	318.9	1,790	126.9

資料：韓國統計年鑑, 1947, 1947, p. 58. 農業年鑑, 1966, p. 137.

問題는 결코 金肥에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農藥에 관하여서 또한 우리는 그의 消費量이 近來에 穀價의 騰貴率이나 穀物의 增收率을 훨씬 넘어서 急増하고 있는 動向을 볼 수 있다. 이것이 穀物의 生産費를 올리고 따라서 實質的 「씨레」를 形成시키는 重要한 要因이 되고 있음은 다시 말할 것도 없거니와 金肥와 農藥은 바야흐로 惡循環하는 技術的 施用條件이다.

〈表 19〉

農 藥 消 費 量 動 態

1960	5,857ton	275	(1946年=100)
1961	5,557	261	
1962	7,421	349	
1963	18,772	888	
1964	23,356	1,096	
1965	12,729	597	

資料：農業年鑑, 1966, p. 23.

필경 生産資材의 위와 같은 非效率的 施用은 問題의 「씨레」形態如何에 불구하고 農業經營費의 上昇(다음表 참조) 따라서 農業所得에 대한 重壓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 近者의 動態를 注視하되 우리에 있어서 구태여 그를 「重壓的 安定期」로서 特徵化하려는 理由이며 그것은 더욱 近者 非農業部門의 性急한 成長運動에도 關聯하여 우리의 關心을 끄는 重要한 對象의 하나이다.

農業經營費의 增勢(戶當平均)

年	經 營 費 總 額	同 指 數	秋收期販賣米價指數
1960	8,810원	100.0	100.0
1961	10,930	124.1	110.0
1962	19,390	220.1	159.8
1963	24,383	276.8	199.0
1964	24,327	276.1	222.3
1965	27,179	308.5	230.3

資料：農業年鑑, 1966, p. 159. 米價는 表15참조.

注意：우리는 여기에 經營費의 騰勢가 米價에 比하여 훨씬 優位에 있음을 注目한다.

要 約

解放以後 約 20年, 그동안 農工產品間의 「쇠레」現象은 대체로 歷然한 「템포」를 보인 가운데 時期에 따라서 起伏를 자아내나 적지 않다. 우리는 그의 全體를 概觀하되 크게 解放直後의 混亂期, 6.25事變中の 動態 事變直後의 數年 그리고 1960年代의 現局面을 米價와 肥料價를 中心으로 본 것이나 그의 波動은 이들 段階에 따라서 약간의 特徵의 消長을 보이는 樣相이다.

우선 解放 直後의 出發期에 있어서 이미 穀價에 대한 肥料價의 騰貴率은 200%를 훨씬 넘는 「쇠레」狀態이었으나 그후 6.25事變中 穀價의 戰時的 暴騰期를 맞이하여 그것은 外面上 一時 調整된 動向을 보이었고, 그러한 特殊過程을 지나서 다시 1955年~1960年의 地點에 이르자 農村의 類例드문 不況으로 말미암아 事態는 惡化하였음이 주목된다. 실로 後者에 있어서 急「템포」로 擴大되어 가는 「쇠레」過程은 1930年代에 못지 않는 農業恐慌의 激化期를 特徵의으로 助成한것이 事實이다. 그후 1960년에 이르자 政治的 變革과 아울러 農村의 危機的 局面은 그의 價格의 交易條件으로 하여금 이 以上 不利性이 追加될 수 없을 만큼 極頂에 達한것이 眞實이라 할수 있다. 그리하여 1961年 以來 위의 「페리티」(쇠레)曲線은 不得已 그의 高개를 약간 숙으렸으며 1960年을 基準으로 하였을 때 其間 多少의 逆「쇠레」現象마저 보인것이 當局의 資料에서 일어진 近者의 動態이다.

그러나 1961年 以來의 逆「쇠레」現象인즉 아직 流動的 段階인 만큼 지금 만약 觀察의 基準을 1947年 또는 1955年(이들은 一般物價指數作成의 基準年度이었음)에 바꾸어 이를 살펴 본다면 事態는 즉시 逆轉하고 말게 된다. 그리하여 1966年의 指數를 본다 할지라도 이때에 農家에 대하여 80% 以上 不利한 「쇠레」過程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만약 이에 兼하여, 여기에 年中 平均 米價대신에 秋收期(10月~12月)의 農家販賣米價를 취하고 또한 配給肥料價格에 農家の 現實的 市場購入肥料의 價格을 勘案한다면 앞에서의 「쇠레」幅은 능히 100%를 넘게 되는 推算이다. 그렇다면 結果의으로 韓國農民이 8.15解放을 起點으로 하여 自身の 販賣 穀價에 比하여 越等히 高價의 金肥를 써왔다고 볼 수 있는바 이것이 곧 「쇠레」의 全樣相이 아니며 하물며 農村不況의 唯一한 原因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적어도 中樞的制約條件의 하나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밖에 우리는 一般農家에 있어서 肥料뿐만이 아니라 生産 資材一般의 消費量이 急激히 增大하고 있다는 近者의 動態를 이에 關聯된 무거운 條件으로 注視하는 것이니 사실 穀價의 保障이 이에 따르지 못할 때 그러한 動向인즉 實質的인 「쇠레」激化의 結果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